

경제

골목상권이 무너진다

③ 사면초가 지역상권

“저가폭탄에 벼랑끝 몰렸다”

“우리같은 상인들은 대형마트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요. 그래도 안되면 문 닫는 거죠.”(광주 두암동 H슈퍼마켓 운영 김모씨)

“살아살아 했는데 아울렛이 생긴 뒤로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네요. 마흔이 훌쩍 넘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광주 첨단 G의류점 운영 김모씨)

“우리가 싸게 파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트보다 싸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싸게 팔아도 도둑놈 취급 당해요.”(광주 양동시장 식육점 운영 박모씨)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주변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인근의 소규모 상권은 치명타를 입는다. 광주는 자영업 비중이 22.9%에 달해 소규모 상권이 몰락할 경우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중은 되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자영업자 수(14만명)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0%(9만8천명)로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호황을 맞았던 2007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고 있는데다 과격적인 할인율을 앞세워 가격경쟁을 펼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역 상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2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간 가격 할인 경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네 슈퍼마켓 10곳 중 7곳은 최근 대형마트 간 가격할인 경쟁으로 매출과 고객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할인 경쟁에 따른 고객 및 매출액 감소 현상을 보면 고객과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매점 비율은 71.9%에 달했으며, 점포 경영상



대기업이 규모를 줄인 기업형슈퍼마켓(SSM) 형태로 골목상권까지 파고들자 지역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 서구 치평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예정지에서 열린 ‘SSM 입점 반대 시민결의 대회’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형마트 진출로 동네슈퍼 매출·고객 20% 감소

영세 자영업자 속출... 지역경제도 큰 타격 우려

황은 82.1%가 지난해 1분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금융사업’ 대출 신청자에서 광주·전남은 142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에 불과했지만 서울·인천·경기(92건) 등 타지역보다 신청건수가 월등히 높아 지역 영세상인들의 경영난을 반영했다.

대형마트들의 지속적인 ‘할인 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곳은 또 있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다. 관련 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관계가 깊고러워할 것을 우려해 자신들의 어려움을 털어놓기조차 꺼렸다.

농산물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은 지난 2~3

월 이상기후로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대형 마트의 납품단가를 이를 거의 반영해 주지 않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생산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경남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사무이사는 “대형 마트가 출혈 경쟁을 하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무너트리 결국엔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 이르면 오늘 재협상”

노조 대의원 과반수 이상 교섭 재개 동의서 받아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이 빠르면 13일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대해 협상 테이블 단합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나흘째인 이날 노조는 협상 재개를 위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섭 재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전체 대의원 85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49명이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결됐고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만큼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을 재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사무실을 옮겨 업무를 마비시킨 전 노조동자회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집행부 업무를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조합원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노조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민노회는 사무실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업무 재개 즉시 중단된 교섭을 진행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측도 교섭 재개를 희망하고 있어 빠르면 13일께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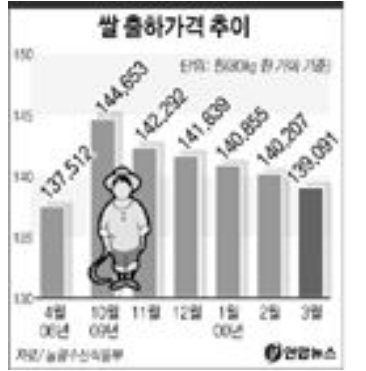
사측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갈 경우 회사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며 “채권단이 최후 통첩한 20일까지는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질지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정리해고자들은 이날 ‘금호타이어 해고자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잠정 합의안 부결에 따른 노조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정과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직접 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줄 것과 해고자들을 위한 투쟁 공간 마련, 식사 및 투쟁용품 지원 등을 요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쌀값 끝없는 추락

2009년 생산 출하 이후 가마당 13만원대



쌀값이 추락하고 있다. 2009년 산(産) 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린 이래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쌀 농사를 앞둔 농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2일 파악한 지난해 전국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평균 쌀 출하가격은 13만9천91원(80kg 한 가마 기준)으로 전가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김경남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사무이사는 “대형 마트가 출혈 경쟁을 하면 당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무너트리 결국엔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다. 전국 RPC의 쌀 출하가격은 2009년산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지난해 11월 14만2천289원을 기록한 뒤 ▲12월 14만1천639원 ▲2010년 1월 14만855원 ▲2월 14만206원 등 줄곧 하락했다.

문제는 2월부터 새로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단경기)인데다, 정부가 생산량에 걸린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사들인 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사들인 물량이 많은데다,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도 감소하고 있는 탓에 빠른 해결책을 찾기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 추세를 예의 주시하는 한편, 전남쌀 구매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급한 부동산 출구전략 건설경기 위기 초래”

지난해 확대시행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등 성급한 ‘부동산 시장 출구전략’이 민간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위원은 12일 건설협회와 이사회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PF’발 건설금융위기 재현되는가’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DTI 확대시행,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폐지 등 ‘부동산 출구전략’을 성급하게 내놓자 주택경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건설사들을 지탱해왔던 공공부문도 물량 감소와 최저가 나찰제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누적시키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Table with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710.30), 코스닥지수 (507.67), 금리 (국고채 3년) (3.85%), 원·달러 환율 (1,114.10원).

연말누계 \*수치는 전월 증가 기준

韓銀, 올 경제성장률 5.2%로 상향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5.2%로 종전보다 0.6%포인트 상향했다.

한은은 12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작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6.6%, 하반기 4.0%를 기록하면서 연간 5.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작년 12월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0.6%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5% 내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1분기 7.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뒤 2분기 5.8%, 하반기 4.0%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노조 대응 못해”...기아 화성공장장 교체

기아자동차는 화성공장장에 노사 전문가인 윤문수 전무를 임명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잔업을 하지 않고도 잔업수당을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최근 판매 호조로 생산 물량이 달려 주말 특근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특근 및 잔업수당의 조건 없는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기아차는 2008년까지 노조와 협약을 맺고 잔업을 하지 않아도 하루 2시간분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이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실제 잔업이 없으면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보빌딩 대인동 소년사거리2번)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011-609-5221) (삼무지구 이비동 김지평 1층)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삼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www.85658948.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6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5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평) 전답 102만원. 나주신포 (16,300평) 조경 352만원. 동림동 (1,352) 준주거 350만원.

건물매매. 위치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한진지구 37억원 3,300만원 659원. 동림지구 7억원 1,700만원 329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원. 한진지구 4억 1700만원 289원.

아파트/빌라. 소계지 대지/건물/건평/최저가/비고. 신안동 대154,23305 8794년 179 4층0양사실. 신안동 대138,23060 391년 214년 1층154년. 신안동 대208,23070 999년 181년 3년 1층154년. 신안동 대2128,23700 4899년 2197년 6년1년 1층154년. 신안동 대380,211023 11297년 1399년 6년1년 1층154년. 신안동 대682,21392 691년 493년 1층154년. 신안동 대1637,23400 4095년 2297년 6년1년 1층154년. 신안동 대271,2672 397년 199년 1층154년. 신안동 대462,23000 2094년 799년 3년1년 1층154년. 신안동 대2671,2827 1294년 499년 1층154년. 신안동 대21,2733 591년 399년 1층154년. 신안동 대214,2499 591년 399년 1층154년.